

연중 제27주일

기도서 452면(다해)

제1독서: 하 바 1,2-3.2,2-4  
제2독서: 2 디모 1,6-8.13-14  
복 음: 루 가 17,5-10

# 숲 정 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루가 17,6).

## 강론

## 소리

### 세계 성체대회 - 왜 필요한가?

한 기호 신부 / 월명동 전주교회

오늘은 뜻깊은 의미를 갖는 날이다. 온 인류의 일치를 지향하는 세계 성체대회가 우리 조국에서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회는 우리 민족의-남북한-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의 관심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성체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주년의 해에 이어 성체를 주제로 한 사목지침을 바탕으로 성체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왔고 이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체조배, 성시간 등 신심운동과 더불어 한마음 한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오늘의 대회는 바로 이러한 성찬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모두 성체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대회가 한낱 행사위주로 끝나 버리고 만다면 아무런 의의도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 생명을 바치셨다. 심지어는 바치신 당신 희생 제물을 생명의 음식으로까지 내 주셨다. 또한 희생되고 봉헌되신 당신의 구속공로를 우리 모두 함께 나눠 갖도록 해 주셨다. 허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좋은 일을 한다해도 오른 손이 한일을 왼손이 떠벌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이다.

참으로 하느님이신 분이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먹히는 존재가 되셨음에(필립 2,6-8) 비해 우리는 가졌다는 이유로, 또는 무슨 일을 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신을 으시대며 드러내려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가?

성체를 모심으로 우리 자신도 남에게 밥이 되어 주도록 초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이 되어 주기는 커녕 남을 나의 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진정 기쁜 이 날에 주께서 지니셨던 가난한 자의 삶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 『서울평화상』의 갈길

명성과 영광이 요구되는 일이다. 영광은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명성은 옳은 사람들의 판단에 의거한 자랑스러움이다.

모든 賞에는 명성과 영광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있다. 밖으로는 노벨상·아카데미상 등이 그렇고 안으로는 仁村賞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서울평화상』을 제정하겠다는 행정권의 발상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명성과 영광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특위 청문회 때 5.18광주민주항쟁을 무자하게 총칼로 진압한 군수뇌들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된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일을 기억해 보자.

상을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름지기 賞이란 잘한일을 찬반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이요, 그 상을 줄만한 인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가 주어야 빛이 나기 때문이다.

독일의 유명한 철십자훈장이 살인마 히틀러에 의해 깎아 바렸고, 우리의 무공훈장이 광주항쟁과 연결되어 더럽혀졌다.

또 대부분의 상에는 상금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서울평화상』 수상자에게 30만불이라는 큰돈을 준다는 것은, 아마도 달동네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냉소를 넘겨서 배신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서울평화상』 제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부끄러운 한페이지의 역사를 장식하기 이전에…….

### 숲정이 산책



## 로사리오 성월

### 목주 기도의 유래

배경 : 목주의 기도는 라틴어 'Rosarium' 장미꽃다발에서 유래한 것이다. 초세기에 이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뜻으로 우리들의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씌우는 습관이 있었다.

초대 교회의 신자들도 기도 대신 장미꽃을 바치기도 했는데 특히 순교자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순교자들은 '팔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 나아갈 때 머리에는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고 순교함으로 주님을 희움기에 합당한 차림을 하였던 것이다. 밤중에 몰래 신자들은 거룩하게 몸을 바친 이들이 썼던 장미관을 한군데 모아 장미꽃 한 송이에 기도 한 가지씩을 올렸다.

'에집트'의 사막에 숨어 기도하는 은수자들은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그렇게 작은 나락이나 돌을 엮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영적인 꽃다발을 바치는 습관에서 비롯되어 목주의 기도가 생겼다.

처음 : Albigenian 이교인들이 Toulouse 지방을 침략할

때 성 도미니코(1221년 사망)는 "성모님께 열심히 기도하자. 마리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이후 신자들은 목주기도를 바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발전 : 1883년부터 시작된 레오 13세 교황님의 여러 회칙들 속에 세계의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목주의 기도를 바칠 것을 전세계 신자들에게 호소하셨다. 역대 교황님들 그리고 최근 바오로 6세께서도 1969년 'Recurrens mensis October' 회칙에서 목주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다.

목주의 기도는 언제 할 것인가.

성모 마리아께서는 매년 발현하실 때마다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목주의 기도를 바칠 것을 당부하셨다.

목주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모 마리아를 통해 언제나 하느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 생활하도록 한다.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함으로 날로 우리 자신을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며, 필요한 은혜를 성모님께서서는 청하여 주실 것이다.



### 성서와 함께

## 55. 구약의 형성(G) : 후기 예언서

히브리 성서의 후기 예언서는 네 권으로 구성된다. 이 네권의 책들은 대체로 두루마리의 길이에 맞춘 탓인지 각 권의 분량이 거의 같다. 이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12 소 예언서, 곧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바꾹, 스바니야, 하깨,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 예언서이다. 12 소 예언서가 한 때 하나의 두루마리로 합해져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대 예언서들도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임을 시사한다. 더구나 어떤 예언자도 예레미야 36장을 제외하고 손수 자기 설교를 기록하는 일이 없고 육성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이다. 후대에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추종자들이 그 설교들을 수집하여 연대 순과 내용순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선집을 만들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언서 역시 전설이나 법전처럼 장구한 성장기를 거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를 들 수 있다. 내용상 도저히 한 시대에 탄생된 작품으로 볼 수 없는 이 예언서는 현대 성서학 자들에 의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인다. 제1 이사야서(1-39)의 예언은 유배 이전 7세기의 상황에 부합하고, "위로의 책"으로 알려진 제2 이사야서(40-55)는 바빌론에 유배온 사람들에게

전한 희망의 소식을 담고 있으며, 제3 이사야서(56-66)는 유배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에게 전해진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였다.

예언서들이 최종 편집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수정과 삽입이 있어 왔음은 물론이다. 후기 예언서를 구성하는 세가지 중대한 요소를 아래에 소개한다.

가. 히브리 시의 운율을 빌려서 선포되는 신탁은 예언서의 대부분을 이룬다. 신탁의 첫 머리는 보통으로 "주께서 말씀하신다"로 시작된다.

나. 신탁과 더불어 예언서들은 신탁을 발설한 예언자들의 전기기를 싣고 있다. 이 전기기는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의 자서전을 들 수 있는데 이 자서전은 설화이기보다 신탁에 가깝다.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이 범주에 속한다.(예레1, 1-14; 13, 1-14).

후기 예언서의 작성 연대는 대략 기원 전 750-350년 사이이며 집회서(48, 22-49, 12)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12 소예언자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기원 전 200년 경엔 후기 예언서들의 최종 편집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축/ 개원

### 김석주내과의원

진료과목 : 내과·소아과

전문의 : 김 석주 (토마스)

서 정애 (에베레시온)

전주 금암동 남도주유소앞 2층

☎ 251-2686

수시모집·원장 직접 개인지도

전주노리노힉복·양재

### 홍패션학원

원장 김형문 (대리언드레이)

동부시장앞

☎ 86-2715

젊음과 지성의 센스  
아메리칸캐주얼

### HANG TEN

행텐 전주점오픈

김요왕·채글라라

관동로 전주백화점 개사중간

☎ 84-4094

### 논노가 만든 아동복 누꼬빙 전주점

김승곤 (프람치스꼬)

유희수 (세실리아)

구 시집가는날 사거리

임호성의원 옆

☎ 86-1880

담 간!

『귀하고 예쁜 우리 청소년들』

“요즘은 애들이 무섭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실감나는 얘기다. 잘 먹어서 그런지 말 만한 아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주눅이 들어 가까이 가는 것도 심치하다. 그리고 각종 난폭한 범죄 행위의 주인공들이 이들과 보니 예쁘고 귀한 생각 보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어디서들 몰려 왔는지 수천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치고 노래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옛날의 내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여 환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참! 좋다!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토록 맑고 깨끗한 아이들! 하지만 무거운 책 가방과 18시간의 공부 노동에 시달리는 불쌍한 아이들! 어떻게든 도와 주고 싶다.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 좋기도 하겠지만, 학비가 없어 중학교도 못가고 지게를 쳐야만 하는 아픔을 면할 수 있어 좋기도 하겠지만, 산과 바다, 험찢 뛰고 땀흘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교회는 어디에든 안식처를 만들어 줘야 한다.

억눌리고 소외받는 노동자 농민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억눌리고 억압당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귀하고 예쁜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말고 누가 그들을 도와 줄까?

교 구 소 식

1. **축!** 세계 성체대회 대미사: 참석치 못하는 신자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합니다.
2. **교구 재정심의회:** 12일 오전10시30분 교구청 회의실
3. **전주 가톨릭 사진동우회 서산동 성당 신축기금 자선 사진전및 지점토 공예 전시회:**  
 때-10월11일~15일 장소-전북예술회관 2층 제3전시실 신자분들의 많은 관람바랍니다.  
 다. 연락처-(홍보국 85-0041).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기념  
**젠 베르데 전주공연**

10월19일(목) 오후7시~9시

전주 실내 체육관

입장료: 성인3,000원 학생1,000원

예매처: 전주 성바오로 서원, 각 본당 사무실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10월21~22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8-6 (051)67-8237  
 ※ **축!** 영명: 성 에드워드도 (13일) 김의철 신부님 성 갈리스토(14일) 정태현 신부님

**요심이** (844) 김병오



■■■■ 축 ■■■■

## 초대합니다

### 전동성당 사무장님 회갑미사

방준철 (요셉) · 고명순 (아네스) 부부  
 1989. 10. 9 오전 10시30분  
 장소: 전동천주교회  
 子: 방 성일, 방 의성, 신부 방 성운, 방 성수  
 ※ 정장안내: 지난주 광고에 일시 19일을 9일로 바로잡습니다.

###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익훈복 · 무대복 · 미춤대어 비디오 · 이오티브촬영  
 신부화장  
 유 순례 (기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서 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서예병행 일용한자  
 개별지도 (초, 중생)  
**전주서예학원**  
 원장 한 상우  
 전북은행 중앙상가지점 옆  
**☎ 251-2250**

해외성지순례안내  
 국제신혼여행안내  
**전 일 관 광**  
 조 선 (안토니오)  
**☎ 6-6666~8**

**에스오이트케주얼**  
**Syt 전주대리점**  
 (전주백화점 앞)  
 이 수미 (글라라)  
**☎ 전주 82-9894**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 기정 (요셉)  
 효자성당 앞  
**☎ 82-6492**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 석  
수녀원 82-9662

- ※ 경축! 세계성체대회: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가정방문: 10월2시-중노1가12반 미사8시-박한규씨택 11월9시-중노2가1반 미사3시-강덕규씨택 12월9시-중노2가2반 미사3시-김성균씨택 13월9시-중노2가3반 미사3시-김갑인씨택
  2. 모임: 성심회, 부녀회월례회-10월 어머니미사후 성령기도회-12월 7시30분 사목회월례회-13월 7시30분 꾸리아월례회-15월 2시
  3. 공소사목위원선출: 회장-강문수 부회장-최관길, 안병두 총무-강영훈 감사-유영수, 송기호 선교부장-이길수 전례부장-이성진 재정부장-송기태 청소년부장-전경환 애령부장-방요셉 구역부장-김종순 여성부장-김수금 사목회회합-매월첫주 3시 4. 탈삼미사: 10월9일 11시 중노1가12반 이경제씨 모친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빈첸시오회: 10월 오전10시
  2. 자모회: 12일 오전10시
  3. 안나회: 12일 오전10시
  4. 여성분과회: 14일 오전10시
  5. 성우회: 15일 공식미사후
  6. 요셉회: 22일 공식미사후
  7. 청년회: 15일 저녁미사후
  8. 신협정기총회: 15일 공식미사후
-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유대식 ②노부영  
봉헌-유대식씨 부부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 ※ 축!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장엄미사: 서울여의도 광장**
1. 구역미사: 12일 내어두
  2. 환자봉선체: 11일
  3. '90년예산서 제출: 각 단체장님들 내년도 예산 제출하세요.
  4. 차주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정한보 ②김금자 봉헌-황옥섭 최용선씨 부부
  5. 감사: 성체대회 참가에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환웅  
수녀원 84-2276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묵주의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1. 회의: ①성심회-10월13일(금) 오후2시 ②제속프란치스코회-다음주 오후2시 ③성모회-다음주 공식미사후
  2. 모임: 전례부-다음주일 저녁미사후
  3. 알림: ①가정방문-10월11일(수) 12반~13반, 10월18일(수)14반~15반  
\*가정방문 해당반장님은 당일 오전9시까지 성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정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축! 성체대회**
1. 10월11일 수요일 당일반 저녁미사 있습니다.
  2. 올드레아, 베로니카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3. 청소년사: 서완산동1가 동서편 10월9일~14일

## \*전동

사제관 본당 86-5789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진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

- ※ 성전보수현금 바랍니다.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1. 세계성체대회 관계로 오늘 본당미사는 공식미사(10시30분) 저녁7시30분미사만 있습니다.
  2. 본당사무장님 부부 회갑미사: 9일(월) 오전10시30분미사
  3. 대건신협임시총회: 12일(목) 오후2시(전동성당)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재속글라라 형제회 정기총회: 14일(토) 오후1시
  5.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레지아: 다음주 오후2시 7. 역물사자모임: 다음주 저녁7시30분
  8. 반기도회: 17일(화)~20일(금) 반별로 실시합니다.
- 성전보수비현금액: 2,300,000원 □ 현재모금금액: 67,822, 원  
□ 성전보수비신입액: 없음 □ 현재신입금액: 184,517,1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  
수녀원 87-0229

- ※ 국가 보안법을 철저히 하라.**
1. 성체대회 참가인원: 184명
  2. 자모회·성심회: 10일(화) 오전10시30분, 오후2시
  3. 예비자교리시작: 15일(일)부터(예비자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4.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청년회: 15일(일) 오후4시 6. 형제회: 11일(수)12, 21, 24, 26, 20, 19반 12일(목)15, 16, 17, 18반 13일(금)30, 광곡, 평촌
  7. 신부님께 편지를 보내는 주소: 우편번호437-120 경기도 시 포일동 산18-1(서울구치소) 제58호 박병준(반드시 보쪽의 주소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8. 축! 결혼: 15일(일) 오후1시30분 신부-조성숙(마리아) 방-강철환
  9. 차주전례: 박연희 복사-서영상 연호 봉헌-김상규부부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  
수녀원 84-4804

1. 경축 서울 세계성체대회: 10.8(일) 08:00-14:00-경축대사
2. 부활반 예비자 교리시간: ①일10:30(지하교육관) ②목(후):30(4호) \*1신자 1예비자를 인도합니다.
3. 켈 베르테 전주공연: 10월19일(목) 후7시(실내체육관) 세계인 음악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지속적인 성체조배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5. 모임안내: ①글라라회-수요일 오전11시 ②성모승천반 영세모임-10.15 11시미사후
6. 청소년당: 금주-광진1단지 서부거성 차주-효자1단지 광진작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  
수녀원 87-0711

- ※ 전교의 달: 1명씩 선택하여 기도하고 활동합니다.**
1. 성모회 월례회: 13일(금) 어머니 미사후
  2. 득배공소미사: 13일(금) 오후3:00
  3. 이서공소미사: 13일(금) 오후8:00
  4. 예비자 교리시간: 주일9:00성인, 10:00중고생, 수요일9:성인, 오후8:00성인
  5. 구역반회장 단합대회: 10월17일(화) 오전8:30
  6. 주일학교 학생사진촬영: 14일(토) 오후2:00 3,4학년
  7. 감사: 익명 예비자 교육을 위하여 비디오 기증
  8. 차주모임: 올드레아 사목회 새벽회 꾸리아 차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임병용 ②이해숙 기도-박명래 이영자
- 지난주봉헌금: 445,490원 □ 교무금: 762,000원